

19세기 민보(일반 백성의 보자기)의 역사와 디자인

한명숙* · Koslin Desiree** · 임성경*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F.I.T. Museum Studies: Costume and Textile**

이 논문은 조선시대말, 19세기, 여인들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민보(일반 백성들의 보자기)에 관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전통적인 유교사회로 여성들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을 받았다. 조선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인상은 아버지, 남편, 아들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요구하였으므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그들 삶의 전부였다. 그러한 조선사회에서 여인들이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보자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보자기는 다양한 크기, 색상, 문양들을 가진 정사각형의 천을 지칭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러한 보자기들은 이용자, 이용방법, 천의 종류, 문양의 유무나 종류들에 따라 다양한 명칭들을 가진다.

보자기는 사용자에 따라 궁궐에서 사용하는 궁보와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민보로 나누어진다. 이 논문은 민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보와 조각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수보는 정사각형의 천에 화려하게 수를 놓는 것으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결혼식 날에만 수보를 사용한 반면 조각보는 일반 생활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천을 이어서 만드는 것으로 여러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수보와 조각보의 역사와 배경, 그들의 특성들을, 수보의 경우는 사용목적, 사용된 천들, 이용된 문양, 문양의 구성, 색상, 자수기법들로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조각보의 경우는 사용된 천, 패턴, 색상 구성과 스티치기법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서울에 있는 사전 자수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보자기는 넓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여성들의 삶이나 한국의 중요한 문화 유산중에 하나로서 보자기의 적절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있어서 보자기를 중요한 한국의 문화 유산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